

교육선교분과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교회에서는 도제식 교육이 있어왔다. 쉽게 말해서 어찌 너며 교육이다. 오랫동안 함께 밀착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배신자가 하는 것을 따라 배우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사목적 차원의 교육은 아니다.

사목적 차원의 교육은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끊임없이 추구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기 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자들의 영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 내적 신심을 끌어내어 신앙을 성장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육만 가지고는 급변하는 현안을 풀 수 없다. 새로운 교육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만들어

져야 한다.

교육선교분과에서는 가톨릭교회교리서 공부, 성경공부, 피정, 특별강론, 성지순례, 영화상영, 기도의 생활화, 평일미사참여하기, 교회의 가르침 공부하기, 가톨릭 신자의 의무 알기, 철저한 서비스 정신(사무실, 혼인식, 장례식), 먼저 인사하기(예절교육), 신앙공동체 친교 강화, 본당 화합의 장 마련, 인재 발굴, 봉사자 양성, 음악회, 문학의 밤, 성가경연대회,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교육시설 개선(영상시설, 음향시설, 기록실), 신앙서적 읽기(도서관 운영), 동호회 활성화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주변사람부터 전교하기, 체계적 선교교육(책자, 매체, 강의), 효율적 접근 방법, 선교할당제(개인, 단체), 선교사상식(개인, 단체), 선교지원

센터, 선교네트워크 구성, 쉬는 교우 회 두 방안 등의 선교 프로그램이 있다. 더불어 교리봉사자 양성, 예비신자 봉사자 양성, 교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영세자 관리 프로그램 등의 교리 봉사자 프로그램이 있다. 행복대학 프로그램으로는 '하느님께 올바르게 다가가기'를 모토로 스마트 시니어(교육), 활동하는 시니어(봉사활동), 희망이 있는 시니어(심리상담), 어르신 선교단 구성, 어르신 복지단 구성 등의 시니어 프로그램이 있다. 연례회에서 철저한 봉사자 정신으로 장례의 제반적 돌봄을 위한 장례봉사자 양성, 장례지도표준지침, 연도연습, 연도대회, 연도참석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교육은 교육선교분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신자와 단체가 공유하는 분

야다. 준비되어있는 프로그램에 모든 단체가 적극 활용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게 해야 한다. 교육은 성장하는 것이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 성장하고 살아 움직일 때 강한 추진력과 자신감이 생기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나가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야 한다. 신앙의 열정에 불을 붙일 때다. 교육을 통한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자. 무한히 잠재해 있는 신앙의 열정이 그림고 그림다. 조용히 두 손을 모아본다. 윤희완 요셉



어떤 대세

작년 6월 5일 우리 레지오 단원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현대해상에 근무하던 올케가 근무 중에 갑자기 쓰러져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뇌사상태란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을 수조문한 끝에 일산 동국대병원으로 옮겨져 다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선천적 뇌기형인지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뇌혈관의 한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갑자기 터지게 되면 생존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병으로써, 뇌의 한부분이 아닌 두 군데에서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분이 이렇게 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장기기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평상시에 장기기증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나타낸 적이 있었기에 가족들 중 누구도 선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천주교 성사인 대세를 받게 하고 싶어서 신부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으며, 환자의 친정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인데다 오빠 부부는 냉담 중이긴 하지만 세례를 받았던 신자였기에 대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친정오빠와 함께 중환자실에서 라파엘라라는 세례명으로 대세를 주었고, 다음날 아침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선종하였습니다. 서울삼육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와 장례를 치르는 동안 레지오단원들이 돌아가며 연도를 드리고 장지까지 동행하여 보살피고 줄에 감동한 친정오빠는 삼우제때 본당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고 앞으로 가톨릭 신자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삼학년이었던 고인의 딸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성당에 나와 교리공부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해복 말지나

신부님과 함께 뮤지컬을 보다

저희 여성구역에서는 이번 주보 성인 축일 때 국수잔치를 하면서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라우렌시오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자모회 여러분 구역장님, 반장님 모두모두 나의 일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더운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초가를, 신부님과 수녀님의 배려로 우리 여성구역장과 반장 들은 창경궁에 갔습니다. 본당에서 별로 멀지않은 거리이지만 삶에 바쁘다보니 정말 오랜 만입니다. 설악은 단풍에 우리 마음도 소녀처럼 마냥 들뜬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뮤지컬을 관람하였습니다. 가톨릭재단의 무료병원에서 재단사정이

힘들지않아, 크리스마스 때 TV 생방송을 통해 기부금을 모으고자 하는데, 방송 전날 주연을 할 환자가 사라져버려 그를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동과 애환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뮤지컬이라 춤도 멋지고 노래도 아름답지만, 특히 치매 할머니 역을 맡으신 분의 연기는 우리의 공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소년적 감성을 일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변옥선 마리아



2013년 초등부 주일학교 주요행사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해요!



길고 긴 사순시기를 지나 예수부활 대축일을 기뻐하며 초등부에서는 기쁨 잔치를 진행했다. 매일 성경을 쓰고 새벽미사를 나와서 받은 은총표로 각자 마음에 드는 선물로 바꾸었다. 모두 즐거운 날이었다.

믿음으로 생생!! 사랑으로 예예!! 신앙학교 및 여름캠프

1년 중 주일학교 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학교와 여름캠프. 올해도 큰 사고 없이 모든 아이들이 재미있게 행사를



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신앙학교는 성당에서 교리를 하고 다음날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캠프는 경기도에 위치한 양지청소년수련원에서 2박 3일간 진행되었다. 중고등부와 함께 하며, 그런지 아이들끼리 단합도 잘 되고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나되게 하소서” 청년·청소년 음악회

올해는 특별히 음악회를 통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엔젤성가대와 함께한 “화합의

노래”에서 우리 친구들이 미사 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끈끈한 단합 속에 피어나는 주님 사랑! 교사MT

한 학기 동안 교리를 열심히 하고 여름에 캠프를 가는 우리 친구들처럼, 교사들도 화기를 마무리하고 2학기를 재정비하기 위해 초등부·중고등부 함께 MT를 갔다.

올해도 서로의 부족했던 점, 잘했던 점을 나누며 남은 시간도 기쁘게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 청량리성당 건축의 발자취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제기동 성당에서 분가된 본당은 어느덧 6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자, 포근한 안식처입니다.

본당 설정 이후 인근 성당을 분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당은 현재 바오로병원 수녀원으로 사용되는 곳에서 시작하였으며, 옛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 1년간 성전으로 사용하던 중, 1987년 안경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이 좁은 공간과 주변 환경에 미래를 염려하여 현재 위치에 부지를 매입, 신축 이전하였지만, 출입구가 골목길인 등 지금과 같은 주변정리가 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1989년 2월 남국현 사도요한신부님이 부임, 개인주택을 여러 채 사들여 마당과 출입구를 만들었으며 이는 현재 화단과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때 성당 지하 1,2층을 보수하여 교리실 및 회합실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 신자가 기차를 타고 대성리 진로잔디구장에서 야외미사와 체육대회를 하고, 흥천강 유원지에서 여름캠프를 일주일

동안 열어 편한 날에 휴가를 보낸 곳 같은 추억이 남아있습니다.

1994년 9월 조순창 가시미로신부님이 부임, 현재 사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와 정문이 된 2층 양옥집과 한옥 한 채를 매입하고 정비해 성당 마당으로 사용하니, 주변이 정리되고 답답한 가슴이 탁 트여 각종 행사에 더없이 편해졌습니다. 또 1996년 여름 경기북부 지방의 집중호우로 다불산 묘지가 유실되는 등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신자들과 이웃,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로 유실된 묘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때는 군중후원회, MF가 매우 활성화 된 시기입니다.

1998년 10월 최용록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신부님이 부임, 본당이 서울 대교구 제5지구 지구장 본당으로 지정되어 지구장으로 1년 재임하였고, 현재는 이문동성당입니다. 1999년 10월 이기현 사도요한신부님이 부임, 강남성모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2001년 3월 권홍식 바오로신부님이 부임하시어 지금의 사제관, 수녀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대표 신부가 되신 전종훈 시몬신부님이 2002년 10월 부임하였고, 신자들은 주님의 뜻을 좇아 신앙생활에 전념하였습니다.

2007년 2월 김병은 사도요한신부님이 부임, 때 마침 성당 앞이 소방도로로 넓어지는 도시계획이 확정 되었으며, 20년 된 본당의 개보수를 위한 건축위원회가 구성, 신부님과 건축위원회의 의논 결과, 시설이 노후 된 성전 일부를 보수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오랜 동안 신자들의 성전개보수를 위한 2차 현금과 신입금 약정으로 2008년 5월부터 준비, 8월에 착공, 2009년 부활 때까지 성전 내부는 물론 성당구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대공사에 하여 오늘의 성전이 되었으며, 리모델링은 전신자들이 함께 동참하였던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리모델링 후, 교구방침에 따라 인근 성당과의 구역정리로 그동안 40년 이상 함께 신앙 생활하던 3개 구역의 많

은 신자들이 인근 성당으로 편입되어 교적을 옮기게 되었고, 교적정리가 된 일부 신자들은 신앙에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편 리모델링하는 동안 성당출입구 앞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동안 본당 소유였던 대지일부는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고, 본당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던 국유지(222-4, 7.8m²)는, 본당에서 매입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2월에 부임하신 이계철 라파엘신부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여 생활화합시다.'라는 사목목표를 갖고, 라우렌시오회와 더불어 본당에 필요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부님과 우리 모두 함께 신자배가운동으로 역동적인, 활기차고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홍석중 바오로



혼인갱신 미사

지난 5월 21일(화)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혼인갱신 미사가 있었다. 나는 1997년도에 세례를 받고 그 해 11월 9일 결혼을 했으니 16년 차다. 교교 시절 세례를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지나쳐 버렸던 나는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아내와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린 뒤 미사시간 중간에 관혼배를 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성가정을 약속하며 함께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 두 아이는 의젓한 중학생이 되었고 모두 신앙생활을 하며 일상을 가꾸어 가고 있다.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며 늘 함께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맹세했던 그 때가 혼인갱신 미사를 통해 더욱 다가옴은 그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나의 무지가 깨어나는 계기였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는 성가정과 사랑의 약속이 변함없기를 일러주시는 신부님의 말씀 속에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가슴에 꽃을 달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행진하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함은 너무 익숙한 사람과이기 때문일까? 비록 16년 전의 상큼함과 두근거림보다는 못했지만 성가정과 사랑의 약속을 다시 맹세하기에는 성당의 엄숙한 분위기에 도움을 받는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신부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 부부의 날보다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만 생각하는 5월이었지, 부부의 날은 바쁘다치고 무심코 지나쳐 버렸는데, 혼인갱신 미사가 거행된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뜻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전해준 날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미사를 마치고 살며시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아내의 모습이 미안하고 고맙다.



예년에 없던 혼인갱신미사를 통해 나에게 한 반성과 성가정과 사랑의 약속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내년에도 본당에 둘이 하나 되는 날을 신부님이 마련해 주시길 하느님께 기도해 본다.

이영민 라파엘

미사보를 쓰고 싶은 남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생전에 100여회의 해외 순방을 통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해외 방문 중에 한국을 방문했던 1984년의 한국천주교 200주년과 1989년 세계 성체 대회를 꼽으셨다고 한다. 세계 교회에서 로마보다도 더 로마적이라는 한국 교회의 전례 안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사보의 위력이 있다. 100만 명이 함께 했던 1984년 여의도의 103위 시성미사에서 그 넓은 광장을 뒤덮은 미사보를 쓴 자매들의 모습이 어찌 인상적이지 않았는가?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자매들이 미사보를 쓰지 않는 것이 당연시 여겨진다. 미사보가 하느님의 정배로써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더 부각되면서 남녀평등이나 여권 신장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남녀 평등 안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이유로 사도 바오로의 권유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어느 순간 미사를 드리면서 미사보를 쓰고 싶어졌다. 세상의 온갖 유희와 나의 방황 안에서 더럽혀진 내가 당당히 고개 들고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부당했기에, 나는 미사보라도 쓰고 내가 죄인임을 당신과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싶었고 당신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물론 미사보를 쓰는 나의 돌발적인 행동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미사 안에서 분신을 갖게 될 것 같아 아직 실행하고 있지는 못했다.

그러나 마음만은 항상 자매들과 함께 미사보를 쓰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마치 요나의 권유로 니네베 사람들이 재를 뒤집어 쓰고 당신께 용서를 청했듯이 마음 속의 미사보를 통해 나는 당신께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수연 젤마노

본당 시목목표 "성경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여 생활화 함시다"

본당 소식지 창간을 축하하며



천주교 청량리성당 소식지 창간을 진심으로 자축합니다!

설립 60주년 환갑을 앞둔 천주교 청량리성당! 강산이 여섯 번 변하는 세월이니 감개무량합니다.

귀가 부드럽게 열린다는 이순(耳順)의 나이에 접어든 본당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주인,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거처입니다.

6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반듯하게 발전해 온 우리 본당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형제요 자매이므로 이제는 이순이라는 나이에 걸맞게 우리 모두 서로에게 촛불이 됩시다. 다른 사람이 비취 주는 촛불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남을 환희 비추는 촛불이 됩시다. 또 그 촛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고,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촛불을 더 높이 환희 비춥시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 듯 우리도 언젠가는 영적인 삶(영원한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때를 잘 맞고자 더욱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리라 마음먹으며 '인생은 되돌아오는 길이 없다.' 라는 말을 음미해 봅니다. 한번 출발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밖에 없는 나의 인생 지금부터라도 좀 더 소중히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바람과 그토록 많은 아쉬움을 남겨놓고 소리 없이 또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까닭 없이 뭔가 잃어버린 것만 같은 텅 빈 가슴, 인생이 그런 것이라 싶기도 합니다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중히 우리의 삶을 견안해야 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우리 인생이기에 말이지요.

인생은 짧습니다. 하루하루 잘도 가지요. 우리네 인생길에는 가는 길만 있지 되돌아오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아직 살 날 많이 남아 있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살다보면 우리의 온갖 고통과 번민이 사라질 날이 올 것

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지만 죽을 때에는 펴고 있답니다. 갓 태어나는 아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기 때문이고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떠난다는 의미라 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어차피 다 버리고 떠날 삶이라면 베푸는 삶이 당연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좋지 않은 때마침 이 사회에 작지만 한 줄기 빛이 되어 줍시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서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하느님과 성모님께 '하느님, 세상 구경 한번 잘하고 왔습니다!', '성모님, 소풍 잘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지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주님 은총 듬뿍 받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서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복음 2,14)

박인호 안드레아

화천 명월성당을 다녀와서

2013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버가 노랗게 익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게 글을 쓰라 했을 때, 무엇을 쓸까 생각하다가 문득 지난 6월초에 다녀온 군부대방문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봄꽃들이 뿔내듯이 저마다의 색깔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거진 숲 사이로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늦은 아침 번덕스런 날씨는 빗방울이 내리더니 갑작스레 햇살이 쨍쨍 내리 쏘였습니다. 청량리 성당 군중후원회 회원 37명은 넓은 호수와 산골짜기를 지나 명월성당에 도착하였습니다. 성당이 산으로 둘러싸여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 진 베드로 신부님과 수녀님, 교우 자매님들과 함께 성당으로 올라가 미사를 드렸습니다. 신부님의 강론 중에 평일미사에 이렇게 많은 일반인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 하시며, 명월성당을

찾아주신 청량리 성당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힘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사 후에 명월성당 성모회에서 준비해 주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몇몇 교우들은 시냇가에서 손과 발을 담그고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또 다른 교우들은 산나물을 캐며 즐겨워하였습니다. 진 신부님은 우리들의 방문에 힘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들이 더 많은 주님의 은총을 받은 것 같았고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유시간에 이어서 최전방 승리전망대를 견학하였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쪽의 모습은 나무가 없이 붉은 흙만 보였고 그곳을 둘러싼 철조망은 슬픈 마음이 들게 하였습니다. 분단된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젊은 장병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화천 명월성당 신부님과

수녀님, 교우분들과 장병들에게 늘 주님이 함께 하시어 마음과 육체가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지길 기도드립니다.

김정자 사비나



분심



얼마 전 동창모임에서 시중에 떠도는 농담 한마디가 안주거리로 올랐다. 대상은 중년남자들의 일상이다. 하루 한 끼만 집에서 먹는 사람을 한식이, 두 끼를 모두 집에서 해결하는 사람을 두식이 논, 하루 한 끼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식님, 삼시 세끼와 간식까지 모두 찾아 먹는 사람을 삼식이 xx 로 비하하는 농담이었다. 왜 이런 농담이 생겼을까.

이 농담은 은연중 두 인물을 전제로 한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먹는 사람은 가족 중 남성 배우자로 국한하여 자녀들이나 손위 가족은 논외로 한다. 이 농담을 지어낸 사람이 남자라면 평소 표현하지 못한

아내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는 립 서비스일 수 있고, 여자라면 매일 취사의 수고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해소책일 수도 있다.

사람의 일생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성장한 후 결혼하여 떨어져 나가면 다시 부부만 남게 되는데, 이런 농담은 젊은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별로 해당될 것 같지 않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중년부부나 노부부 사이에서나 있을 법하다.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육아와 살림을 담당하던 남성위주의 전통적 역할분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남성들의 역할을 여성들이 빠르게 대체하는 중이다. 우리 조상들은 가족들이 도란도란 함께 앉아 식사하며 밥상머리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통을 이어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변하는 것 같다. 이제는 남자들이 밥해 먹는 방법을 배워야하는 시대로 바뀐 것 같다.

광야에서 고행하시던 예수님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힘드셨을 것이다. 요즘에는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과의 만찬을 빗대 만찬경영이란 말도 만들어 낸다. 광야에서 초근목피로 고행하시던 예수님의 조악한 식단을 생각하면 이런 비교가 송구스럽기만 하다. 집에서 목주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떠오르는 분심을 적어본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김덕향 요셉

사진으로 보는 2013년 청량리 성당



서울대교구 부제서품식 (2013년 1월 31일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



정월대보름 옷놀이 한마당 (2013년 2월 24일)



주님만찬 성목요일 세족례 (2013년 3월 28일)



부활대축일 성야 미사 (2013년 3월 30일)



사목협의회 파정 (2013년 5월 4일,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축일 기념미사 (2013년 6월 27일)



엔젤성가대 작은 음악회 (2013년 7월 14일)



성리우렌시오 축일 지주석, 명판 축복제 (2013년 8월 11일)



어린이 신임복사 단 (2013년 10월 5일)



상 호 : e 편한이사
전화번호 : 080-492-0024
대 표 자 : 김현규(베드로)

상 호 : 김현정음악학원
전화번호 : 010-9228-1318
대 표 자 : 김현정(레지나)

상 호 : 과산인삼방
전화번호 : 02-962-5196
010-5045-9453
010-8973-5196
대 표 자 : 김윤(바오로)
윤인자(세실리아)

상 호 : 동지 부동산
전화번호 : 969-7762
010-3204-7441
홈페이지 : 청량리동부@단지내상가
대 표 자 : 유준상(요셉피나)

상 호 : 남원추어탕
전화번호 : 965-7463
대 표 자 : 장홍식(아고보)

상 호 : 미즈키즈어린이
전화번호 : 02-959-5941
대 표 자 : 황순희(마리아)

상 호 : 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전화번호 : 2212-3275
010-7268-7850
홈페이지 : 전농동 495-16
대 표 자 : 우혜영(헬레나)

상 호 : 흥능떡집
전화번호 : 963-3970
011-630-3970
대 표 자 : 전장실(사도요한)

상 호 : 현대자동차매장대리점
전화번호 : 010-8992-8572
대 표 자 : 김석중(라파엘)

상 호 :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해상 M.S 대리점)
전화번호 : 2243-9832
011-540-8348
홈페이지 : 답십리동 496-4
대 표 자 : 박명숙(아네스)

상 호 : 수강포장
전화번호 : 960-2911
016-333-4611
대 표 자 : 유창수(바오로)